

김한길, 45일만에 국회로 돌아온다

국정원 개혁 등 '국민연대 기구' 추진 시사

국정감사·예산심의 민생문제 해결 최우선

국정원 개혁 등을 요구하며 장외투쟁을 벌여온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10일 국회로 돌아온다. 국회를 박차고 나간 지 45일만이다.

김 대표는 9일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장외투쟁 성과를 정리하고 새로운 대여투쟁 방향을 소개했다.

김 대표는 지난 8월27일부터 서울 광장에서 노숙투쟁을 시작한 데 이어 8월 24일부터 전국 순회투쟁에 돌입, 버스를 타고 전국 16개 시·도를 방문하는 대장정을 마쳤다.

김 대표는 순회투쟁 성과에 대해 “많은 국민에게 국정원 대선 개입의혹을 알렸고, 국정원 개혁 의식을 국민과 공유하게 됐다”고 자평했다.

향후 대여투쟁에 대해서는 “앞으로 원내투쟁의 날을 가다듬어 ‘24시간 비상국회’의 성과를 내는데 최선

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용진 대변인은 “김 대표는 오늘(9일)까지만 서울광장 천막에서 잘 것”이라며 “내일부터는 24시간 비상국회에 임하는 다른 의원들처럼 국회에서 잔다”고 말했다.

원내투쟁과 더불어 김 대표는 “원외투쟁을 확장하기 위해 투쟁방식을 진화시켜야 한다”면서 “더 많은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사회대표, 종교계 등 여론주도층과 전국적인 연대기구를 만들어 법적 차원에서 국정원 개혁과 민주주의 회복 운동을 펼쳐 나갈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당적을 떠나 뜻을 함께하는 정치인들도 함께할 수 있다”며 “정치적 연대’ 가능성까지도 내비쳤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김 대표가 종북논란에 휩싸인 통합진보당을 제외하고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재야까지 이우르는 ‘신(新)아권대연합’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연대는 국정원 개혁 뿐만 아니라 10·30 재·보선, 더 나아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차기 대선까지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김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대통령에게는 약이 되는 실패, 국민에게는 희망을 위한 승리가 필요한 때”라며

“10·30 재·보선에서 구태 정치의 부활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이 이번 선거에서 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 참여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박명재 전 장관을 공천한 데 대해서는 “과거로 회귀하는 공천”, “국민적 요구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추가적인 회동 필요성에 대해 “박 대통령의 현실인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만남 자체가 또 한번 국민께 실망과 상처를 드리면 안 되겠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미 연준의장
재닛 옐런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



IMF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세계경제 권력 '여인천하 시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새 의장직을 재닛 옐런(67) 현 부의장이 맡게 되면서 세계경제를 좌우하는 정책결정 파워그룹의 여인천하 시대가 열렸다.

벼락 오바마 대통령은 9일 백악관에서 벤 버너기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옐런 부의장을 차기 의장에 공식 지명할 예정이라고 백악관 당국자가 밝혔다.

여성의장은 연준 사상 처음이다. 연준 의장직은 미국의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는 자리이며, 세계 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전문가들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의 미디어들은 일찌감치 이같은 여성들의 약진 흐름에 주목하고, 세계경제 권력 지도의 새로운 판도 변화를 예고하는 기사를 내놓았다.

특히 WSJ은 앞으로 5년 안에 세계 경제 위기가 재발한다면 이를 해결해야 할 5개 자리 중 4개는 여성이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며 5개 자리에 미국

대통령, 연준 의장,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독일 총리로 최근 꼽았다.

이런 틀에서 본다면 이 중 유동적이던 두 개 자리의 주인이 결정되면서 이미 세 자리로 여성의 차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WSJ의 관점대로 앞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여성이 네 자리로 페치는 시대가 성큼 다가온 전망이다.

옐런의 연준의장 등극에 앞서 지난 달 총선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승리를 확정하며 3선이라는 기염을 토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IMF 총재 자리에는 지난 2011년부터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맡아 세계경제 권력의 한 축을 형성한 지 오래다. 이렇게 세 여성과 더불어 헬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이 차기 미 대통령 선거 후보군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어 2016년에는 미국 대통령 자리도 여성으로 교체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연합뉴스

안철수 ‘내일’ 조직 실행위원

박광호 前순천시의회 의장 사임

노벨화학상 3명 공동 수상

미 카풀러스·레비트·워설

카풀러스 교수
 레비트 교수
 워설 교수

신당 창당을 목표로 지난달 출범한 안철수 의원 층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순천 지역 조직 실행위원회로 참여했던 박광호 전 순천시의회 의장이 실행위원회를 사임했다.

정책네트워크 관계자는 9일 “박 전 의장이 지역에서 활동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어 사퇴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박 전 의장은 정책네트워크 내일이 지역 정책을 발굴하고 연계하려는 조직으로 알고 실행위원회를 맡았지만,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를 위하여 구성됐다는 등 외부의 시선이 순수하지 않아 사임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네트워크 내일’ 광주·전남 지역 실행위원회를 중사임의 시를 밝힌 것은 박 전 의장이 처음이다. ‘정책네트워크 내일’은 조만간 2차 실행위원회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바른사회공헌포럼 토론회 김성호 前복지부장관 주자

사회통합·성장 선순환
복지재정 확대 불가피
단계적 증세정책 필요



면 수십 년
후 국민경제
에 심각한
부담이
된다”며 “복지
국가를 만들
려면 정부가
새로운 종류
의 사회서비스 투자를 늘려야 한
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채무 힐링 센터 표준조례안 발표 서민의 눈물 가계부채 민주당이 함께하

·일시 : 2013. 10. 9(수) 11:00 ·장소 : 서울시청 ·주최 : 민주당乙지로위원회 ·참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채무 힐링 센터 표준조례안’을 발표한 뒤 민주당 시·도지사협의회 의장인 강운태 광주시장에게 조례안을 전달하고 있다.

민주-소속 단체장, 가계부채 해결 적극 나선다

‘채무 힐링센터 조례안’ 발표…강운태 시·도지사협의회 의장에 전달

민주당과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서민들의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소내를 걷어붙였다. 정부에서 운영 중인 헛살론이나 미소금 등이 깨다로운 조건, 낮은 접근성 등으로 채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우선 이 표준조례안을 민주당 소속 전국 지자체에 제안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표준 조례안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1대1 재무상담을 통해 채무조정제도, 복지수급제도, 취업 교육 등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알선하거나 직접 채무액을 제공한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행사에

서 “박근혜 정부가 못하는 가계부채 해결 이제 민주당이 해보겠다”면서 “가계부채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자 ‘채무 힐링 센터 표준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우선 이 표준조례안을 민주당 소속 전국 지자체에 제안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표준 조례안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1대1 재무상담을 통해 채무조정제도, 복지수급제도, 취업 교육 등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알선하거나 직접 채무액을 제공한다.

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김한길 대표로부터 조례안을 건네받은 강운태 시장은 “현재 광주시청 민원실에서도 자산관리공사 등과 협조를 받아 채무조정이나 상담역할을 하고 있는데, 채무 힐링 센터가 만들어진다면 이러한 활동들이 더 큰 힘을 얻을 것”이라면서 “민주당 소속 8개 시도지사와 95개 기초단체장과 함께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사정상 “급매”

순천법원 정문, 농협 뒷 건물

- ▶ 대지148평, 건물 480평, 신축건물
- ▶ 5층 건물(1층 82평, 2~5층 각 100평)
- ▶ 감정가/시세 – 23억원
- ▶ 임 대 – 보증금 3억원에 월 1,400만원 예상(임대중)
- ▶ 대 출 – 14억원(이자 월 560만원)
- ▶ 매매가 – 22억원
- ▶ 수 입 – 5억원 투자에 월 840만원

주인직매 010-4667-9300

경매 투자

경매 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을 모십니다.

단독/공동투자 가능하고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 취급하고
주1회 3개월 스터디 합니다.

교육비는 1,200만원이고
경매로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 드립니다.

단, 상담 후 본사가 결정합니다.

주식회사 오천경매 최 선규 드림
문의 : 010-3605-5000

오천경매 대부

광주 동구 제029호
(동구청 경제과 062-608-2504)
월3.25%이하, 연39%이하
(연체 및 추가비용 없음)
광주 동구 천변우로 339-2001호

도

농분/쓸분!
문의
010-3605-5000